박원자의 母情佛心 ⑬ 종연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인천 동국명상원장 종연 스님은 어머니의 권유로 불문에 귀의해 출가수행자가 됐다. 스님의 어머니는 평생을 출가 수행자처럼 살았고, 아들 넷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라"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하는 간화선 집중수련회에 다녀왔다. 몇 년 동안의 회사생활에서 막 벗어난 서른 살의 딸과 함께였다. 오래 전부터 꿈꾸어왔던 일이라 설레임을 안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선방에도 앉았다. 묵언해야 했지만 쉬는 시간이나 잠자리에 눕기 전, 딸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마음공부를 시작한 딸이 고맙고 기특했다. 자신이 마주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시작한 108배 100일기도를 시작한 지 21일만이었다. 딸을 보면서 느꼈다. 역시 엄마와 자식은 하나의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엄마의 진리에 대한 확신에 비례해 자식의 내면도 깊어진다.

어느 곳 어느 때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로써 그의 영혼을 맑게 하리라.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리라. 죽어 다비할 때까지 중생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살아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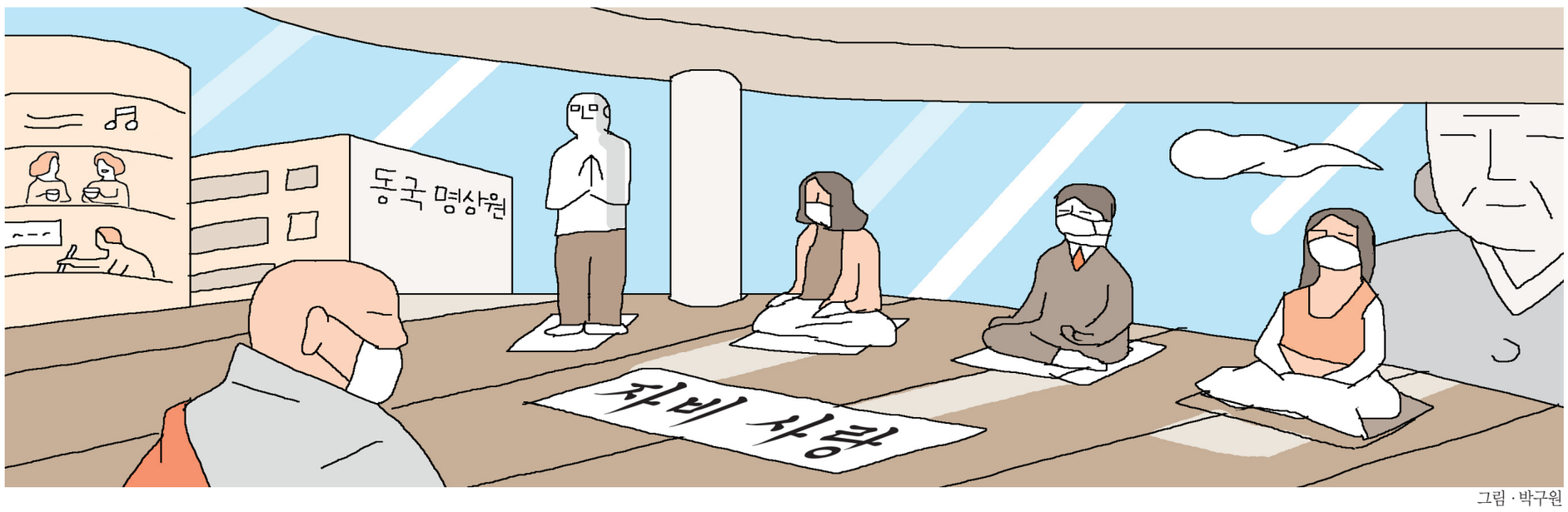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젊은 시절, 이제부터 완벽하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발원하며 저 글을 썼다는 종연 스님에게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을 했다.

"베풀기만 하고 사는 삶이 때론 힘들지 않으세요?"

"산다는 것은 살아감이 아니고 살아짐입니다. 살아감은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고 살아짐은 이타행 그 자체거든요. 이타행이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타행으로 바꾸는 일은 참 어려워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어요."

몇 년 만에 찾아뵌 종연 스님의 직함이 바뀌어 있었다. 동국명상원장. 인천문학경기장 지하철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선학동에 4층짜리 명상원이 들어서 있었다. 예전에 왔을 땐 사무실로 쓰던 작은 가건물이 있던 곳이다.

명상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스님의 불심은 철저히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 12년 전 구순을 넘기고 돌아가신 종연 스님의 어머니는 아들만 넷을 두었다. 그 중 셋째 아들인 종연 스님은 대학을 다니다가 출가했고, 막내아들은 중학교 때 출가를 시켰다.

"어머니는 출가자처럼 사셨어요.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수산물을 파는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잘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절에 다니시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불사에 앞장서셨죠. 어렸을 때부터 바랑을 하나 메고 동네곳곳을 다니며 탁발을 다니시던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바랑 속엔 집집에서 얻어온 귤이며 당근, 쌀 등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해서 어머니는 절에 가져다 드렸죠. 염불은 출가자인 저보다 더 잘하셨죠. 제가 학인 시절에 염불을 하는데 다가와서 잘못되었다고 조용히 지적해줄 정도였으니까요."

방황하던 셋째 종연 스님
어머니 권유로 불문 귀의
아들 넷 중 2명 출가시켜
항상 이타적 삶을 강조해

늘 절에 갈 때는 셋째 아들을 주로 데리고 다녔던 어머니의 기도가 더 깊어진 것은 종연 스님이 중학교에 다닐 때다. 위로 형 둘이 월남전에 참가했다. 울며 뜯어말렸던 어머니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참전하겠다는 젊은 혈기의 아들들을 끝내 붙잡지 못했다. 첫째 아들은 비둘기 부대에, 둘째 아들은 백마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아예 사랑방에 불단을 차렸다. 아침저녁으로 절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불을 드리고 염불하며 기도했다. 오로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 둘의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였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셋째 아들의 불심도 깊어갔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던 어느 날 여러 어른들과 앉아 법문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가 가슴에 내려 앉아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마음이 곧 부처다."

어린 소년의 눈엔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법당의 부처님이 부처인데, 마음이 부처라니. 그렇다면 부처가 되면 저렇게 법당에 앉아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움과 함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마음을 찾으면 부처가 되는가? 마음이 무엇인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만들어 화두가 되었고 마음을 규명하는 출가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 어릴 때부터 사색적이고 천문학 등 미지의 세계를 동경했던 어린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다. 조용히 어머니가 아들의 변화를 보고 있었으리라.

어머니의 기도가 날로 깊어가던 어느 날 월남전에서 큰아들이 제대를 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곧 둘째 아들도 돌아왔다. 참전한 지 8개월만이었다. 총상을 입고 돌아왔으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간 작은 부상이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이 주신 가피라고 여겼다. 기도가 더 절절해졌다.

그러나 세상 모두 어머니의 존재는 무수한 고통과 직면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강인함을 담보하지 않던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나머지 아들 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숙제를 안겼다. 이번엔 어려서부터 몹시 병약했던 막내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구인사로 갔다. 어머니로서는 병약한 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부처님 품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멀리 단양에 아들을 두고 온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을 두고 오는 마음이 쓰렸으리라. 다행히도 아들은 차츰 건강해지면서 출가의 길로 들어섰다. 22살에 군대에 다녀온 후 세속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 아들은 건강하게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잘 살았으니, 어머니는 그것도 부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번엔 셋째 아들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반항적인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부도 잘하고 불심도 있어서 기대가 남달랐던 아들이 월사금을 속여서 돈을 더 타내고, 시내에 나가 하숙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마련해주면 그것을 팔아서 라면을 사먹기도 했다.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끝내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출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정의로움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아들의 강한 성격이 어디로 뻗을지 몰라 염려가 되었을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생각해봅니다.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출가를 했으니까 계율을 지키면서 대자유인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겠죠. 자식은 어머니가 가장 잘 아니까 어머니가 제 기질을 알고 일찌감치 출가를 권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출가는 어머니의 강요가 80%였던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스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가 강요한다고 출가가 되나요?"

"어머니는 세속에서의 삶이 허망하다는 것을 아셨겠죠. 아버지께선 많이 배우고 박학다식한데다 사업도 성공했고 점잖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울산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작은 어머니를 두고 사셨거든요. 어머니는 내색은 안하셨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돈이나 명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순간 진솔하고 겸손해지죠. 자기 본성만 들여다보면 절대로 허투로 살 수 없잖아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셨을 테고 그래서 제게 출가를 권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음'을 규명해보겠다는 화두를 품고 있었던 터라 비단에 수놓듯 자연스럽게 출가가 이뤄진 것이죠. 제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그 뿌리도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드님 넷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셨을까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고 부자로 살고, 명성을 얻는 삶, 이런 것 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성품이 강직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자식들에게 관대한 편이었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매를 들어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래서인지 저도 출가해 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사업을 하신 탓에 풍족한 편이어서 집이 여러 채였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주어 무상으로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도 집집마다 들러 탁발을 해서 절 살림에 보태신 걸 보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하심을 배우셨을까 싶습니다. 나누는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철저히 실천한 분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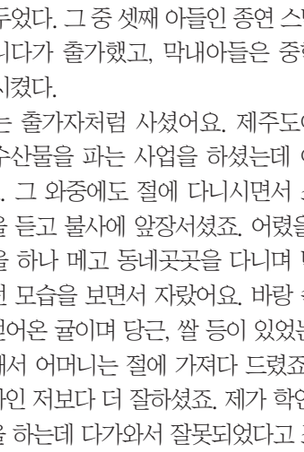
강인했던 스님의 어머니도 마음에 드는 자식과 살고 싶어 하는 여느 어머니와 다르지 않아 수행자 아들이 사는 절에서 살고 싶어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종법에 맞지 않는 일이어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는데, 종연 스님은 그 일이 가장 회한으로 남는다고 했다.

종연 스님이 오랫동안 꿈꾸고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동국명상원은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의 공간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수행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명상협회에 소속된 인천지부로, 24시간 개방하는 열린 참선방, 집중명상실, 명상 강의실, 강연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다. 자연음식을 배우고 먹을 수 있는 채식전문 식당과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카페도 있다. 명상프로그램으로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데일리 명상, 명상에 대한 체계적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명상 아카데미, 명상이 낯선 사람을 위한 스터디 명상, 개인과 단체의 특성에 맞춘 커스텀(Custom) 명상, 주말 집중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도반들은 나이 들었으니 편히 살지 왜 일을 사서 만들었냐고 해요. 그러나 출가수행자는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존재인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중생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죠."

그렇게 말씀하는 종연 스님에게서 일생을 길 위에서 전법하셨던 부처님의 모습과 바랑을 걸머지고 탁발하러 다니셨다는 스님의 어머니 모습이 겹쳐보였다. 〈작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온 영성계의 클래식.
개체성을 넘어서자마자 참자아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내 안의 나
참나찾기의 마지막 여정

삶의 진실찾기 게임에 몰두하던 저자는 어느 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받아적기 시작하고, 이 말씀들은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어,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된 '거룩한 존재'의 비밀을 열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풍요의 삶을 위한 생각활용법까지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 조셉 베너 / 유영일 옮김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세상 전체를 떠받드는 거룩한 사랑의 큰 손이
내 숨결보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느껴진다. —아마존 독자 서평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내 실존의 중심에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잘것없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왜 그렇게도 끈질기게 남아 있어서 모든 것이 구족되는 활활발발한 인생은 곧잘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물질 위주의 의식 찌꺼기들은 어찌하여야 깨끗이 청소될 수 있을까? 나의 참된 주인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린다.

올리브나무 010-7755-2261, 070-8274-1226

직접 주문
02) 2004-8253
010) 7755-2261

* 교보, 알라딘, yes24, 인터파크 등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반야참회 영상강의 수강생 모집

〈반야참회〉의 저자 혜룡스님의 반야참회 영상강의를 개강합니다.

참회는 불교신행의 기초입니다. 기복신앙뿐 아니라 수행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들이 참회법을 잘 몰라서 신행에 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습니다.
반야참회는 기존 참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떤 행위가 악업인지, 그것을 어떻게 참회하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기도에는 물론이고, 화두참구나 명상의 보조적 수행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인터넷(Zoom)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반야참회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과 함께, 화상통화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혜룡스님과 문답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반야참회를 접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자인 혜룡스님에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회법을 잘 알아서 기도와 수행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싶은 불자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혜룡스님 약력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 수료.
• 〈반야참회〉 저술(2012년)
• 범어사, 쌍계사, 화엄사 승가대학 교수 역임.
• 센텀 일심사 주지 역임.
• 서울, 부산 불교방송(bbs)에서 반야참회 소개.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이내.
개강 : 2021년 6월 1일(화)
기간 : 5개월. (강의 진도에 따라 1개월 연장될 수 있음)
회비 : 월5만원. 부부동반 신청과 35세 미만은 월3만원.
교재 : 〈반야참회〉(불광출판사). 교재가 없어도 수강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교재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됨. 가격은 13,000원이며 서점 구입 가능.
문의 전화 : 010-8995-0743

반야법회(반야참회 신행모임) 홍보팀